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12호

사순절 넷째 주일

2020년 3월 22일

예배시간 09:30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 노진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오, 너희 죄를 애통하여라(J. S. Bach)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84장(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 53:4-5),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회 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 사: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회 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피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 사: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회 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시 23편).

경배찬송 366장(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대하 7:14)는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대하 6:27).

응답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경동찬송 11장) **다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
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시 86:5)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민 14:18)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
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거룩하신 하나님**(경동찬송 32장)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영원하신 주여 자비 베푸옵소서

말씀

구약의 말씀 **사무엘기상 16:1-7** **김민정 목사**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
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
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
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쭙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
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
서 시킨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
다. “그렇소, 좋은 일ियो.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
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
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 된다. 그는 내가 세
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에베소서 5:8-14** **배영호 목사**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여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 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9:1-7** **목사**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 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심정기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내 평생에 가는 길(P. P. Bliss)** 박영미 집사(Cello), 최정현 집사(Clarinet)

설교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502장(빛의 사자들이여)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arr. J. C. Pardini)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장례: 故 고찬례 성도(향년 82세/김정란 집사 모친 · 권주현 집사 장모, 권하영 교우, 권의정 교우, 권혁민 교우 외조모, 8일(주일) 소천, 10일(화) 발인)

2. 주일예배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3. 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반드시 헌금자를 기명하여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봉헌 3월 8일

감사헌금

김수평 · 임문규(범사), 박한승(건강 감사), 심재운(감사), 오성혜(이사 감사), 이광수(감사), 채수일 · 김경숙(범사)

고난의 현장으로

여해 강원용 목사(1917-2006)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점점 더 다가오는 고난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며, 진정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고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고전 10:13)

호렘산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 16:33)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똑바로 듣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고난의 현장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임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청각을 날카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해 강원용 목사, 『돌들이 소리치리라-강원용 목사 10주기 추모 설교선집』
대한기독교서회, 2016, 279-280.)

다음 주일 말씀

3월 29일(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 경: 구 약(에스겔서 37:1-14)

서신서(로마서 8:6-11)

복음서(요한복음서 11:38-44)

설 교: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 채수일 목사